雲門

불기 2565년
겨울호
통권 제158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화엄세계를 장엄한 58회, 운문의 春 · 夏 · 秋 · 冬을 갈무리하며… / 진유 대교과
- 나무가 잎을 내리고 뿌리로 돌아가듯 우리도 근원의 불성자리로 돌아가는 겨울이 되기를… / 범응 대교과
-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수놓은 형상이로다. / 총지 대교과
- 매서운 칼바람도 이겨낼 새싹들에게 찬탄 합장합니다_()_ / 심광 사교과
-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 자우 사교과
- 모두 잠든 겨울, 잠들지 않는 내 마음이 되어지이다. / 현지 사교과
- 추운 겨울 따뜻한 온기가 그리운 듯 초심자의 마음엔 부처님 말씀이 그리워라. / 이재 사집과
- 새벽녘 법당으로 가는 길에, 밝게 길을 비추어 주는 달님 고맙습니다. / 원녕 사집과
- 나뭇잎을 떨구고 멋진 골격을 드러낸 운문산처럼, 군더더기 떨쳐낸 자신을 마주해도 당당하게 성장하는 첫 겨울이 되기를! / 승연 사미니과
- 도반. 그 따뜻한 이름에 하루하루가 힘이 나며 두렵지 않음이로다. / 해탈향 사미니과
-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니 어느새 치문 마지막 철입니다. 행복한 한 해로 마무리 잘 지어봅시다! / 혜견 사미니과

불기2565(2021)년 통권 제158호 겨울호

雲門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 무언의 소리를 들어 봅시다 명성
0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풍경 속 주인공은 안녕한가 동우
08 교수논단 — 청허휴정淸虛休靜 선시禪詩 연구 [1] 원법
13 풍경소리 — 설해심雪害心 천진
14 학인논단 — 사성제四聖諦를 기반으로 성냄[瞋] 내려놓기 혜광
20 선지식 탐방 — 불일암의 넉넉함 – 불일암 덕조 스님 – 무공
25 想 — 연기법 안정
26 외부기고 — 화엄법계와 연기법 이시우
30 수행의 두레박 하나 — 길 정연下
32 수행의 두레박 둘 — 보물찾기 선혜
34 운문, 운문인 — 배려, 인내, 화합으로 따뜻한 겨울 편집부
36 차례법문 — 병病, 고苦, 그리고 심心 이재
38 자유기고 1 — 나의 업業 보명
40 자유기고 2 — 『소연경』, 『기세인본경』을 통해 본 불교의 세계 대겸
42 운문만행 — 일주일간의 부동심不動心 – 화엄반의 문수선원 선방 체험 선일
44 화랑동산 —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 – 제71회 전국 지도자 연수회 교화부
46 이 한 권의 책 — 『혼자 걷는 이 길을』을 읽고… 향광
48 운문논평 —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 관음전 〈관음보살도〉

무언의 소리를 들어 봅시다

명성 / 운문사 회주

새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올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올 가을에 운문사의 단풍을 만끽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곱게 물들었겠지만 유독 올해 형형색색의 고운 빛깔이 제 시선을 잡아끌었지요. 화랑동산 뒤의 기다란 담벼락을 나란히 하여 늘어선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나무의 사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보리수수목원에서도 많은 학인스님들이 포행도 하고 긴 장대로 감을 따는 모습도 자주 보았습니다. 심신의 수행을 돕기 위해 조성한 도량을 대중스님들과 관광객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운문사에는 수령 500년 된 천연기념물 제180호 처진소나무와 수령 45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처진소나무는 갈잎 하나 없이 푸르고 늠름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데, 은행나무는 몇 달 전부터 한 나무가 조금 아파 보이더니 올해는 잎 끝이 빨리 밤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도에 제가 왔을 때 은행나무 주변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커다란 은행나무 밑에 소를 매어놓은 흔한 시골풍경이었지요. 점차 조경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만방에 이름을 알리며 수많은 팬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개방을 못하게 되어 팬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나무 전문 박사님을 모셔서 진단해보니 다행히도 많이 아픈 것은 아니고 표면의 흙이 단단해져서 조금 답답해하고 있으니 내년 봄에 겉흙을 뒤집어 주면 나을 것이라 합니다. 저보다 몇 백 년 앞서 이곳에 자리 잡은 나무를 병들게 했다는 자책과 함께 꼭 치료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매일매일 문안인사를 드리고 살피고 있습니다.

나무나 식물, 유정물 무정물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맑혀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산도 수행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금강산을 들자면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봄에는 온 산이 새싹과 꽃에 뒤덮이므로 '금강산金剛山' 이라 하고, 여름에는 봉우리와 계곡에 녹음이 무성하여 '봉래산蓬萊山' 이라 하며, 가을에는 일만이천 봉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기에 '풍악산楓嶽山' 이라 이름하고,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지고 나면 뼈대만 드러나므로 '개골산皆骨山' 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이름 중 '금강산' 이라 불리는 것은 불교의 영적인 산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며 108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 같은 수행을 하겠다고 다짐하며 수만 년 동안 계절 따라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셀 수 없는 중생들을 품어 길러내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발심하고 운문사승가대학에 입학하여 동고동락하며 4년을 함께 보내는 학인스님 여러분! 인생의 4년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요즘은 늦게 발심한 출가자가 많아서 적응기간으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불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생을 통해 각자의 수행의 진도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생을 알려면 현재를 보라고 했습니다.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특히 졸업을 앞둔 대교반 스님들은 진로를 정하는 기간이니만큼 꼭 자기와의 만남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내면의 목소리가 이 생에 목표한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좁은 시야로 자신을 가두지 말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내면의 소리와 삼라만상의 무언의 소리에 눈과 귀를 열고 들어 보면 핵심을 꿰뚫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풍경 속 주인공은 안녕한가

동우 / 운문사승가대학 조교수

주말이나 휴일의 운문 도량은 소위 '절간' 이 아닌 여느 유명 관광지를 방불케 한다. 코로나로 인해 실내가 아닌 야외로 나선 인파들로 정작 절간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영락없이 포위되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다. 저녁예불을 위해 포위망을 뚫고 법당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멀기도 하다. 사람들은 법고를 비롯한 사물들을 향해 시선을 모으고 카메라를 들이댄다. 법고 소리가 둔탁하고 박자가 어눌하다 싶으면 왠지 마음이 쓰인다. 저들의 카메라에 담겨지는 풍경은 무엇일까.

그러나 한편으로 나들이를 나선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또 하나의 풍경이 된다. 수곽에서 물장난 하는 꼬마아이, 처진 소나무 앞에 늘어선 포즈객들, 반려견의 걸음을 좇는 젊은이… 서로가 서로에게 풍경이 되어 주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나' 일 뿐이다.

청풍료 앞을 가로지르는 학인스님들은 누구에게인지도 모를 합장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목련나무까지, 정랑까지, 정통까지 그렇게 가고 그렇게 다닌다. 멀리 혹은 가까이 보이는 스님이 상반인

지, 하반인지, 도반인지 용케 잘 식별하여 합장의 선후를 가늠하는 모양이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도량의 동선을 오가며 마주치는 스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쳐가는 풍경이 되어 주고 있다. 그러나 마주치는 풍경 속의 주인공이 경험하는 것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단지 '나' 일 뿐이다. 내가 풍경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는 대상 모두는 나와 온전히 동일한 단 하나의 '나' 를 살아가며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내 앞을 그가 지나가고 그 앞을 내가 지나간다.

대중이라는 숲에서 한 그루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간의 익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름으로서 익명이 아니라 개별로 드러나지 않는 혹은 드러날 수 없는 익명성 말이다. 목련나무를 지나며 만나는 학인스님의 따끈따끈한 오늘의 안부를 나는 잘 모른다. 나에 대해 그 역시 그렇다. 만약 절뚝거린다면 발이 아픈가 알 것이고, 눈이 빠알갛게 부풀어 있다면 필시 울었겠거니 하며 걱정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징후없이 드러나지 않는 몸과 마음의 안부를 도량을 오가는 얼굴과 걸음걸이만으로는 알아차리기 어렵다. 현재뿐 아니라 그의 과거도 미래도 마찬가지이다.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의 도량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의 일생이 함께 와 있는 것' 이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 이 와 있는 것인지 모른다. 멀리서 가까이서 오고 가며 주고받는 대중스님들의 눈빛도 현재뿐 아니라 그의 온 과거와 어쩌면 미래까지를 담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보거나 보여지는 것은 온전히 '나' 의 경험이지만, 보고 보여지는 풍경 속에 수많은 '나' 들이 '너' 가 되어 서로서로의 풍경이 되어 비추고 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는 '너' 를 통해 하나의 풍경이 된다.

고양이 보리가 갑자기 한 발을 들고 세 발로 경중거리며 걷는다. 발이 아픈 것이 틀림없다. 사람처럼 발을 들고 걷는 모습이 신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무슨 일로 다쳤을까. 대답 없이 지나치는 보리의 병명을 동물병원에서 비만으로 인한 관절염이라고 말해 주었단다. 그동안 사료를 주는 대로 말없이 과식한 탓인가보다. 도량에서 가장 팔자 좋게 느림과 게으름의 미학을 구가하던 고양이 보리의 걸음걸이가 본래 풍경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대중은 사료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운문이라는 큰 화폭에 담긴 온갖 풍경은 나와 너로 어우러지며 매 순간의 변화를 겪는다. 매일매일의 산천초목이 그렇고, 하루하루의 일상 속 대중들의 온 몸과 마음이 그렇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안부가 그렇다. 그러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온전한 '나' 를 살아가며 그려내는 풍경 속 주인공들은 안녕한가.

청허휴정淸虛休靜 선시禪詩 연구[1] 1

원법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목 차

Ⅰ. 머리말
Ⅱ. 선시상즉禪詩相卽의 격외시格外詩
Ⅲ. 재도지기載道之器의 설리시說理詩
Ⅳ. 시중유화詩中有畵의 산거시山居詩
Ⅴ. 맺음말– 휴정선시의 특징과 의의

Ⅰ. 머리말

조선조 불교의 중흥조라 일컬을 수 있으며 사상과 수행, 문학 등 당대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단연 청허휴정淸虛休靜(1520~1604)을 들 수 있다. 휴정은 문정왕후의 섭정시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에 의해 선교양종과 승과가 부활되었을 때 배출된 인물이다. 그는 선과 교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서 그 기준을 제시하였고 선교 통합을 주창하였다. 또한 임란 극복의 선봉에서 호국불교를 실천, 조선 불교의 명맥을 이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삶은 이후 불교계의 흐름을 주도하게 된다. 나아가 청허의 시문집인 『청허당집淸虛堂集』에는 승려로서는 드물게 600여수의 많은 시작품이 실려 있어 조선중기 선시문학사를 정립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청허의 시를 선시의 보편적 시론인 선시일여禪詩一如[2]의 입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선과 시의 공통점으로는 "직관과 별취, 상징성의 활구, 쌍관어의 동시표현, 비의법의 추상적 철학화, 인생관에 의한 현실초탈, 언어를 초월한 무한의 의미 전달, 묘오견기妙悟見機의 선취와 시취, 일상생활이 선, 평범한 언어가 시, 격식을 초월한 진리 추구" 등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선시일여를 종합하여 휴정 선시를 선시상즉禪詩相卽의 격외시格外詩, 재도지기在道之器의 설리시說理詩, 시중유화詩中有畵의 산거시山居詩로 분류하고 분석할 것이다.

우선, 선시상즉禪詩相卽의 격외시格外詩는 선이 곧 시요, 시가 곧 선이라는 선시일여론禪詩一如論이다. 이러한 범주를 논자는 선시상즉禪詩相卽이라 표현하였다. 이 상즉의 논리는 "선종 안에 뿌리내려 선불교의 돈오頓悟를 결과했다."[3] 이렇게 선이 시가 되고 시가 선이 되는 상즉의 선시일여에는 격외의 선 도리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재도지기在道之器의 설리시說理詩는 선禪을 시詩로 드러내었기 때문에 일여하다고 하는 도구적道具的 접근이다. 조선시대 재도지기在道之器의 문학론은 조선조를 일관하는 흐름이다. 재도지기의 시문학관은 효용의 측면을 강조하였기에 미적 측면보다는 도를 설명해 내고 보여주는 설리적說理的인 경향이 강하다. 선사들의 유·불·도, 선·교, 염불 등에 대한 견해와 수행 방법 등 학인을 제접해 주는 시들은 대부분 서술적이며 설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진魏晉시대 이후 유송시대 노장사상의 영향을 받아 시중유화詩中有畵라고 불리는 산수시가 등장한다. 이 자연을 읊은 산수시는 '한대漢代의 천인감응론적 우주관이나 유가의 비덕론比德論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미적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시대에 이루어진 산수 관념은 기본적으로 당송시대까지 이어지는'[4] 순수자연시문학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선사들은 자신의 깨달음의 정서를 주로 산수에 기탁해 표현하는데 이때의 시들은 선사의 정서적인 측면을 시로 표출하였기에 선시일여禪詩一如의 한 범주로 성립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휴정 선시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조선 중후기의 선시의 특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선시상즉禪詩相卽의 격외시格外詩

이식李植 여고보汝固父가 쓴『청허당집』서문에 "우리 스님은 임제臨濟의 적종嫡宗이시다. … 지금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며 읊은 선송禪頌이 모두 있다."[5] 라고 하였다. 그의 시 상당부분은 그 화두로 깨침을 얻은 격외의 도리를 표현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격외의 깨친 자리가 시가 되고 시가 선이 되는, 선禪의 언외言外의 묘오妙悟와 시의 묘오妙悟가 상즉하는 시들을 아래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巍巍落落子 외외하고 낙락한 그대여
澗舌山爲身 시내가 혀고 산이 몸이구나
漏洩毗盧偈 비로자나의 게송을 누설하여
流通是石人 이 석인에게 유통하누나

衆生以爲身 중생으로 몸을 삼고
諸佛以爲骨 제불로 뼈를 삼으며
天地以爲喉 천지로 목구멍을 삼아
呑吐風與月 바람과 달을 삼키고 토하누나

〈無位二〉[6]

이 시는 나와 대경對境이 일체임을 보여주는 시이다. 소식蘇軾이 읊은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 말씀이요, 산색이 어찌 청정신이 아니겠는가(溪聲便是長廣舌 山色豈非淸淨身)' 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소식은 '어제 밤 자신이 깨달은 이 소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 줄까(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擧似人)' 고민한다. 깨달은 이의 중생에 대한 고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은 어떻게 자신이 터득한 자리를 가르쳐 주어야 할지 고민한 것이다. 소식의 깨달음의 진위여부는 두더라도 휴정의

1) 이 논문은『선학』제54호, 한국선학회, 2019에 실린 논문을 요약한 것임.

2) 대개 선시일여禪詩一如의 효시를 엄우(嚴羽)(약1290~1364)로 비정하고 있다. 엄우는『창랑시화滄浪詩話』「시변詩辨」에서 '대개 선도禪道는 오묘한 깨달음에 있고 시도詩道 또한 오묘한 깨달음에 있다.' 거나 '시에 있어 입신入神하는 것이 최고이다.' 라고 하였다. 또 "시의 묘처는 투철하고 영롱하여 억지로 결합될 수 없는 것이다. 마치 허공 가운데의 소리, 모양 가운데의 소리, 물속에 어린 달, 거울 속에 비친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묘오妙悟와 입신入神, 묘처妙處에서 선과 시가 같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권동순(원법), 「조선조 18세기 선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P54 재인용

3) 김호성,『대승경전과 선』민족사, 2002, P183

4) 명법,『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도서출판 씨아이알, 2009, P 201

5) 休靜 撰『淸虛堂集』韓佛全 7, p.658c-p.659a 〈淸虛堂集序〉"吾師臨濟之嫡宗也… 今其叅話禪頌具在"

6) 休靜 撰『淸虛堂集』韓佛全 7, p.687b

시는 이를 훨씬 초월해 있다.[7] 법신불로 일컬어지는 비로자나의 청정한 소리를 누구에게 유통하는가 하면 돌사람[石人]이다. 석인이 아니라면 이미 어긋나 버린다. 소식의 시에서 말한 팔만사천게송은 그대로가 법신의 현현이니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석인도, 시냇물도, 산도 모두 법신불인 것이었다. 이것이 무위無位의 경지며 기개가 활발한 청허의 경지다.

둘째 수에서도 무위진인에 대한 묘사가 계속된다. 중생과 부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생으로 몸을 삼고, 부처로 뼈를 삼았고, 천지로 목구멍을 삼았으니 토해내는 것도 달과 바람이다. 이 시에서 보여주듯 어디에도 걸림 없는 무위진인을 언어도가 끊어지고, 사량할 수 없는 석녀石女 등 선종어(禪語)를 통해 보여주었다.

斫來無影樹 그림자 없는 나무를 도끼로 찍고
燋盡水中漚 물속의 거품을 모두 불태웠네.
可唉騎牛者 가소롭다. 소를 탄 사람이여
騎牛更覓牛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구나
〈法藏大師〉[8]

그림자 없는 나무인 무영수, 물거품, 소 등 선가에서 깨달음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언어들을 사용해 자신의 선적 깨달음과 더불어 수행의 요체를 모두 보여주었다. 그림자 없는 나무와 물거품은 환幻이요, 공空을 보여주는 대명사요, 소(牛)는 선가에서 마음을 표현하고 특히 구도의 길을 찾아 나서는 심우尋牛는 선가에서 시와 그림의 좋은 주제가 된다.

첫 두 구는 사량 분별을 초월한 선자禪者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었다. 이언절려離言絶慮의 무분별지의 세계이며, 중생이 가진 자성 청정한 세계이기도 하다. 이 두 구는 문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이되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 불리문자不離文字인 선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뒤의 두 구에서는 주객미분의 세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엄밀히 말해 내가 곧 부처임에도 다시 다른 곳을 향하여 찾으려고 하는 것을 소를 타고 있으면서도 다시 소를 찾는 이에 비유하여 안타까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소를 타고[騎牛] 소를 찾는[覓牛] 것은 바로 사량 분별로 나눠진 인人과 경境의 세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휴정은 〈人境俱奪〉과 〈人境不奪〉이라는 시를 통해서도 주객이 하나 된 경지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여 주객이 나눠져 있으되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삶 그대로가 곧 깨달은 세계임을 보여주었다. 임제가 수행자를 제접하는 방편으로 내세운 사료간四料簡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의 선과 수행이 임제에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시의 앞 두 구는 무언無言이라고 해야 하는가 유언有言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선가귀감』에서 찾을 수 있다. 휴정은 "한 물건 상에서 구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세 가지 명자를 세우는 것은 교의 부득이 해서이고, 명자를 시켜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는 것은 선의 부득이 해서이다. … 선은 곧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만약 사람이 입에서 잃어버리면

7) 休靜 撰 『淸虛堂集』 韓佛全 7, p.697b 에는 "한평생 일 없이 구름 사이에 누웠나니 동파의 한나절의 한가함이 우스워라(一生無事臥雲間 却笑東坡半日閑)"라고 소식이 〈贈孫薪老〉에서 '승창에서 한나절의 한가함을 빌렸네(曾借僧窓半一閑)' 라는 시에서 밝힌 한가로움을 비웃고 있다.

8) 休靜 撰 『淸虛堂集』 韓佛全 7, p.685b

염화미소가 다 교의 자취가 되고, 마음에서 얻은 사람은 세간의 온갖 잡담이라도 다 교외별전의 선지禪旨가 된다."[9]고 하였다. 그러하다면 위의 시는 무언이라고 해도 옳고, 유언이라고 해도 옳고, 모두 아니라고 해도 옳다. 시라고 해도 옳으며 선이라고 해도 옳을 것이다. 모두 교외별전의 격외도리이다.

이상 이들 시의 특징은 언어도가 끊어지고 사량처가 멸한 격외의 도리를 직절, 상징과 비유, 역설 등 대부분 오언절구로 표현해 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Ⅲ. 재도지기載道之器의 설리시說理詩

청허의 4대 제자[10]의 법손法孫에는 선사禪師와 강사講師도 많았으며[11] 이들은 염불念佛로 정토업淨土業을 함께 닦았다. 이러한 가풍은 삼문수업三門修業의 수행풍토를 이루었다. 휴정은 선문禪門과 교문敎門을 일치시키고 염불문念佛門 등을 함께 수행하는 삼문수업三門修業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의 시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간화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경전은 어떤 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염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 · 교 · 염불의 일치 등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歷歷提公案 분명하게 공안을 잡을 것이요
莫浮亦莫沉 들뜨지도 가라앉지도 말지어다
虛明如水月 걸림 없는 밝음은 물 위의 달과 같아야 하고
緩急若調琴 느슨하거나 팽팽함은 거문고 줄 고르듯
病者求醫志 의지는 병자가 의원을 찾듯
嬰兒憶母心 마음은 아기가 어미를 생각하듯
做工親切處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곳에
紅日上東岑 붉은 해가 동쪽 산에 떠오르리라

〈贈泉禪和子〉[12]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자세를 밝혀 놓은 시이다. 1 · 2구는 공안을 잡되 간단間斷없이 성성력력하게 들어야 하고 특히 들뜨지도 가라앉아서도 안 됨을 강조하였다. 3 · 4구 또한 있다는 생각이나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을 놓은, 망상분별을 모두 내려놓은 걸림 없는 밝은 지혜로 수행 하되 거문고 줄 고르듯 팽팽하지도 느슨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한다. 부처가 저 소냐 비구에게 가르쳐 준 공부 방법을 끌어와 화두 챙기는 법을 보여주었다. 5 · 6구는 아픈 이가 의사를 구하듯, 어린아이가 어미 생각하듯 공부를 절실하게 지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징장로澄長老에게 주는 「참선문」의 내용을 그대로 시화한 것이다. 그런데 시화詩化라는 말이 물색하리만치 문장을 축소해서 옮겨 놓았다. 그러나 이 문장이 시로서 승화되는 것은 운율과 배비 등 율시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구는 깨달

9) 休靜 撰『禪家龜鑑』韓佛全 7 p.635b "一物上 强立三名字者 敎之不得已也 不可守名生解者 亦禪之不得已也… 故曰禪是佛心 敎是佛語 是故若人 失之於口則拈花微笑 皆是敎迹 得之於心則世間麤言細語 皆是敎外別傳禪旨"

10) 사명 유정四溟惟政 · 편양 언기鞭羊彦機 · 소요 태능逍遙太能 · 정관 일선靜觀一禪은 4대파四大派를 형성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법맥은 이들에게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대둔사지』에는 청허계 대표문파인 편양파와 소요파로 이루어진 12대 종사宗師와 12대 강사講師가 언급되어 있어 청허계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

12) 休靜 撰『淸虛堂集』韓佛全 7, p.672b

음의 자리를 보여주었다. 깨달음의 자리는 붉은 해가 동산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움 그 자체이다. 물론 앞의 두 구는 병든 이와 어린 아기, 의사를 찾는 것과 어미를 생각하는 마음 등이 완벽히 대를 이루고 성율 또한 어김이 없어 절구로서의 형식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 시는 화두 드는 법과 공부에 힘 조절하는 법, 깨침의 자리를 모두 오언율시로 정제시켜 드러내 놓았는데 설명적이고 설리적인 시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參禪卽念佛 참선이 바로 염불이요
念佛卽參禪 염불이 바로 참선이니
本心離方便 본심이 방편을 여의는 그곳
昭昭寂寂然 밝고 밝으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리
〈贈念佛僧〉[13]

이 시는 참선이 곧 염불이요 염불이 곧 참선인 선정일치禪淨一致의 사상을 보여 주었다. 또 염불 또한 하나의 방편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본마음이 곧 소소하고 적적한 정토임을 보여드러내었는데 이 유심정토사상을 『心法要抄』에서도 피력하고 있다. 비교해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성 가운데는 본래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없다. 그 이견을 놓아 버리면, 일념이 홀로 우뚝하다. 앞에 나타난 일념이란 사람마다의 본원심이요, 또한 이것이 한결같은 법이며, 역시 이것은 영지靈知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구하는 상相에 막혀 부처는 서쪽에 있고, 나는 동쪽에 있게 되어 이렇게 자성미타와 서방미타가 각기 마주 서게 된다. 바라건대 학자는 이러한 견해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14]

이 글에서 중생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면 자성미타와 서방미타가 각각 능소가 되기 때문에 간곡히 배우는 이들은 양변을 세우고 분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시는 선과 염불의 관계를 피력함에 간결하게 절구의 형식인 대구와 성율의 조합으로 시화하였다. 20자의 절구에서 염불과 참선이라는 단어가 모두 8번이요, 즉卽이 두 번이요, 소소적적이 또 두 번 사용되었다. 여섯 글자를 뺀 나머지는 모두 같은 글자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반복을 피하고 접속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한시 작시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그러나 휴정은 동어의의 자리바꿈으로, 시각적으로 염불과 참선이 즉卽하는 의미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묘미를 보여주었다.

마지막 구의 연然자는 운을 맞추기 위함이겠거니와 본심本心의 묘용妙用인 밝고 고요함이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현전하고, 앞으로도 현전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적 장치로 활용하였다. 설리적인 문장이 시로 탄생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무궁한 뜻을 보여주는 신운神韻이라 하기에 족하다.

위의 시들에서는 경전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인물 등을 용사用事와 전고典故를 통하여 시라는 도구를 통해 함축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13) 休靜 撰『淸虛堂集』韓佛全 7, p.693a

14) 休靜 撰『淸虛堂集』韓佛全 7, p.652b『心法要抄』, "自性中 本無凡聖二見 二見放下 一念獨立 現前一念者 人人本源心 亦是一法 亦是靈知知心 衆生心外覓佛 滯相求佛故 佛在西我在東 於此各立自性彌陀西方彌陀 願學者不惹此見"

雪害心

천진 / 사집과

어둠속 작은 암자
고요한 불빛

바람마저 숨죽인
짙은적막

사락사락 내리는 흰눈
쌓이는 深念에
우자끈 딱!

그대, 보았는가
無明을 가르는 소리

사성제四聖諦를 기반으로 성냄[瞋] 내려놓기

–알고, 버리고, 실현하고, 닦아야 할 성스러운 진리

혜광 / 대교과

목 차

들어가며
고성제 – 괴로움을 바르게 알기
집성제 – 버려야 할 괴로움의 뿌리
멸성제 –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될 수 있다
도성제 –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닦아야 할 길
괴로움의 뿌리 중 하나 – 성냄
나가며

들어가며

불교에서 구경究竟에 다다르고자 하는 피안彼岸, 열반涅槃은 어디인가? 열반의 원어인 니르바나 nirvāṇa는 '불어서[vāṇa] 끄다[nir]' 라는 뜻인데 온갖 번뇌의 불길이 꺼져 괴로움이 모두 소멸된 상태[寂滅]를 말한다. 불과 같은 고苦. 세상을 정복한 전륜성왕도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끊어내려 부처님께서는 한밤에 집을 떠나셨다. 이 글에서는 수행자들이 대면해야 할 진정한 괴로움이 무엇인지,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 소멸은 어떤 형태인지, 소멸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번뇌의 대표적인 뿌리 중 하나인 성냄을 예로 들어 살펴본다.

고성제苦聖諦 – 괴로움을 바르게 알기

괴로움의 소멸이 수행의 귀착점인 이상 먼저 괴로움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괴로움을 행복으로, 행복을 괴로움으로 아는 전도顚倒된 견해로 정진한다면 결코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성질의 고苦에 대해 말씀하셨다.

'고통스런 괴로움의 성질[苦苦性],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行苦性],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壞苦性] (합송경, 디가니까야33)이 있다' 고.

세속에서 말하는 고苦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고통의 '느낌' 을 의미한다. 몸의 통증, 배고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죽음의 공포 등. 이는 위의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 중 고통스런 괴로움의 성질[苦苦性] 곧 몸과 마음에 본래 내재해 있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에 속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괴로운 느낌이 아닌 괴로움의 '특성' 에 주목하셨다.

부처님의 견해에서 행복은 무엇인가? 열반 즉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해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잠시 잠깐 행복한 '느낌' 이 든다고 해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 고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부처님의 견해로는 괴로움이다.

많은 이들이 갈망하는 사랑이나 돈이 대표적인 예인데 설사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 해도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고통으로 변모하며, 돈 역시 더욱더 움켜쥐려 몸부림치다 한순간 잃어버리거나 끝내 죽을 때는 미련으로 남을 뿐이다. 이렇게 보통 행복이나 즐거움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변하거나 사라지면 괴로움이 생기므로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특성[壞苦性]이 있다.

불교의 근본교리 중 하나인 연기緣起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진리다. 세상의 그 무엇도 오롯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는 것이다. 즉 모든 현상[有爲法]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변하고 사라지기에 무상無常하고, 무상하기에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므로 형성된 괴로움의 특성[行苦性]이 있다.

중생들이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고통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고성제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오히려 번뇌의 맛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 도적[五賊][1]에 눈이 가려져 괴로움을 행복으로 좇으며 그릇된 견해[邪見]를 포기하지 못한다. 따라서 바른 견해로써 고성제를 철저히 알아야만 번뇌를 괴로움으로, 해로운 것으로, 윤회의 고통에 얽어매는 사슬로 인식해 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집성제集聖諦 – 버려야 할 괴로움의 뿌리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괴로움과 행복을 느끼는 주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이나 행복은 여섯 감각기관[六根][2]를 갖춘 '나' 라는 존재를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는 이 존재의 실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물질과 정신 곧 다섯 무더기[五蘊]인 물질[色] · 느낌[受] · 인식[想] · 형성[行] · 의식[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셨다. 여기서는 오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전반적인 특성만 살핀다.

오온은 여타의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조건으로 형성된 법이기 때문에 조건의 변형 · 소멸에 따라 가변적인 곧 무상한 특성이 있고 무상한 것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므로 괴로움의 특성이 있다. 그리고 무상함으로 인해 오온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나, 나의 것' 곧 영원한 자아가 없으므로 무아無我의 특성이 있다. 정리하면 우리가 '나' 라고 집착하는 존재의 실상은 몸과 마음, 즉 오온이고 오온은 무상 · 고 · 무아의 특성이 있다.

또한 존재는 육근六根과 대상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육식六識[3]으로 세상을 분별하는데, 모든 현상은 '조건을 말미암아 일어난[緣起]' 것이며 무상 · 고 · 무아의 특성이 있으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해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불교는 바깥세상이 아닌 안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찾았으며 마음을 변화시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존재 즉 오온 자체에 괴로움이 내재해 있으므

---

1) 다섯 도적[五賊] : 오욕락五欲樂. 재물[財], 이성[色], 음식[食], 명예[名], 수면[睡]에 대한 욕구

2) 여섯 감각기관[六根] : 육입六入. 대상을 감각하거나 의식하는 안眼 · 이耳 · 비鼻 · 설舌 · 신身 · 의意

3) 육식六識 : 육근六根으로 각각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법法의 육경(六境:대상)을 식별하는 안식眼識 · 이식耳識 · 비식鼻識 · 설식舌識 · 신식身識 · 의식意識의 여섯 가지 마음 작용

로 괴로움의 원인이란 태어남의 원인과 일맥상통한다. 12연기[4]의 일어남을 살펴보면 '애愛-취取-유有-생生'으로 '갈애(취착)'를 조건으로 생生이 일어나며, 따라서 갈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발생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갈애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함께 일어나며 ①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欲愛] ②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③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非有愛]로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갈애로 인해 업業 또는 존재[有]가 생기고 유익한 업이냐 해로운 업이냐에 따라 선처善處나 악처惡處에 재생한다. 이 태어남 곧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의 형성 자체가 괴로움이므로 갈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확대하면 모든 해로운 법들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다.

해로운 법들의 뿌리는 삼독三毒 즉,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이다. 어리석음은 대상의 실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며, 곧 사성제에 대한 무지다.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대상에 집착하는 탐욕이 일어나며, 탐욕이 만족되지 않을 때 대상을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 근본으로부터 모든 해로운 법들이 파생되며, 해로운 법은 해로운 업을 짓게 함으로써 존재의 괴로움을 낳는다. 집성제集聖諦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 해로운 법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멸성제滅聖諦 –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될 수 있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인 열반涅槃은 불교에서 자주 언급되는데도 요원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성불成佛'도 마찬가지인데 "성불하십시오."라고 서로 축원하면서도 부처가 어떤 의미인지, 부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떠올릴 수 있는 불자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멸성제滅聖諦는 갈애 또는 해로운 법을 버리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사성제 특히 고성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오온에 탐착하고, 충족되지 않을 때 성냄이 일어난다. 이렇게 무명無明을 뿌리로 모든 해로운 법이 싹튼다. 따라서 고성제를 꿰뚫어 보아 있는 그대로를 사무치게 알면[徹見]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해로운 법이 사라지며 태어남이 다하여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 상태가 니르바나, 열반이다.

그런데 정말 열반에 들기를, 이 존재가 완전히 소멸하기를 원하는가? 필자를 포함해 범부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음에 대해 두려움이 일어나기 쉽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삶의 주체로서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취착取着을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나라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진, 조건으로 연기된 법이며 무상 · 고 · 무아인 괴로움의 덩어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관념적 이론을 넘어서 체득體得해야 한다.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음이 행복'이라는 바른 견해가 서면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바르게 정진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열어 보이셨다.

도성제道聖諦 –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닦아야 할 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은 곧 팔정도八正道를 의미한다. 이 여덟 가지의 바른 도는 사성제로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바른 삼매를 통해 완결된다. 그리고 이 바른 삼매는 바른 견해를 증험證驗함으로써 점점 견고하게 하는

데, 이렇게 팔정도는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기도 하며 서로를 뒷받침하고 힘을 증장시킨다.

팔정도는 ①바른 견해[正見] ②바른 사유[正思惟] ③바른 말[正語] ④바른 행위[正業] ⑤바른 생계[正命] ⑥바른 정진[正精進] ⑦바른 기억[正念] ⑧바른 삼매[正定]다. 삼학三學인 계戒 · 정定 · 혜慧와도 통하는데 정견 · 정사유가 혜慧, 정어 · 정업 · 정명이 계戒, 정정진 · 정념 · 정정이 정定에 해당된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인계생정 인정발혜 因戒生定 因定發慧' 라, '계로 인해 선정이 생기고 선정에서 지혜가 발한다.' 라고 하였는데 팔정도에서는 삼학의 마지막인 지혜가 앞서 나오고 두 번째로 계, 다음으로 정을 든다. 이는 삼학에 들어서려면 예비적인 바른 견해와 사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른 견해[正見]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로 바른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불교의 가치관이 녹아 있다. 동시에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을 구분하는 지혜이기도 한데, 해로운 법은 괴로움의 원인이자 버려야 할 집성제이고 유익한 법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성제이다. 한편 그릇된 견해[邪見]는 상견常見[5], 단견斷見[6], 무인과無因果 등 사성제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로 괴로움을 증가시키며, 부처님께서 무지보다도 비난받을 것이고 위험하다고 하신 만큼 단단히 경계해야 한다.

바른 사유[正思惟]는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한,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사유를 말하며 유익한 법에 대한 사유[7]와 사성제에 대한 사유가 있다. 바른 사유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른 견해와 바른 삼매다. 즉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하며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기 위한 청정하고 집중된 마음이 필요하다. 어떤 불교도들은 사유를 '알음알이' 로 치부해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법에 대한 바른 사유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부처님께서도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하지만, 바른 사유는 계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두 가지 사유경」, 『맛지마니까야』19)' 고 하셨다.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서로 도우며 바른 지혜를 성숙시킴으로써 해로운 법을 버리게 하고 괴로움을 소멸시킨다.

견해와 사유가 바르게 세워지면 그로부터 나오는 말, 행위 그리고 생계는 저절로 바르게 된다. 바른 말[正語] · 바른 행위[正業] · 바른 생계[正命]는 사성제에 부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인데, 거짓말 · 중상모략 · 욕설 · 잡담을 삼가고 3계[8]를 지키며 나와 남을 해치지 않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바른가 그른가는 바른 견해 즉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바른 정진[正精進]은 사성제에 맞게 해로운 법은 버리고 유익한 법은 계발시키는 것이다. 곧 사정근[四正勤]으로 ①이미 일어난 해로운 법은 버리고 ②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예방하며

---

4) 12연기緣起 : 연기적 인과관계를 12가지로 나누어 설명. 무명無明–행行–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생生–노사老死

5) 상견常見 : 사람은 죽으나 자아自我는 없어지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

6) 단견斷見 : 세간世間과 자아自我는 사후死後에 완전히 소멸된다는 견해로 인과의 상속, 업業의 상속 또는 심상속心相續을 부정하는 견해

7) 유익한 법에 대한 사유 : 탐욕 없음, 악의 없음, 해코지 하지 않음에 대한 사유

8) 3계三戒 :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婬

③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지속 · 증장시키고 ④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법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힘써 정진하되 만약 사견으로 인해 유익한 법을 버리고 해로운 법을 계발한다면 괴로움이 오히려 커지므로 반드시 바른 정진인지 그릇된 정진인지 바른 지혜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진할 때 바른 기억[正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바른 앎을 기억함으로써 수행의 방향을 유익한 쪽으로 견지할 수 있으며, 이전에 증득한 지혜를 기억함으로써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 또한 기억을 바르게 해야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몸[身] · 느낌[受] · 마음[心] · 법[法]의 사념처四念處에서 오온을 잘 관찰하여 부정不淨 · 무상 · 고 · 무아를 꿰뚫어 봄으로써 고질적인 갈애[9]들도 버릴 수 있다.

마지막인 삼매는 마음의 하나됨인데, 바른 삼매[正定]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팔정도 중 정정正定 이전의 일곱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둘째는 이 삼매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바른 삼매는 바른 견해, 곧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기반으로 계발되므로 사성제를 철견徹見할 수 있게 해 주며, 예비적 관념의 형태로 수행을 이끌어온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완성해 바른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팔정도는 실질적인 수행의 길잡이로서 확실하게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진리이므로 근면하게 닦아 계발해야 한다.

괴로움의 뿌리 중 하나 – 성냄[瞋]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해로운 법[10]들의 대표적인 뿌리 중 하나인 성냄[瞋]을 살펴본다. 성냄은 성난 독사와 같이 잔인하고 거칠며,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고 쌓은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도 있다. 이는 마치 집을 태우는 숲속의 불과도 같기에 성냄을 화火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냄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통찰함으로써 화를 이해해야 한다. 통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일어나는 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고, 둘째는 그 화를 연기의 관점에서 분석해 분명히 아는 것이다. 화란 무엇이고 왜 일어나며,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지혜를 일으키면 화를 내려놓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저 성냄은 무엇인가. 대상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으며 항상 정신적 불만족 · 괴로움이 함께 한다.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대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겪는 많은 정신적 고통은 모두 성냄으로부터 일어난다. 따라서 일어난 마음이 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정신적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 된다.

분노 · 공포 · 절망 등은 비교적 강하게 인식되

9) 고질적 갈애(4가지) : ①몸이 아름답기를 ②행복한 느낌만 일어나기를 ③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④현상들을 통제할 수 있기를 갈애

10) 해로운 법[不善法] : 해탈 ·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 10불선업도(살殺 · 도盜 · 음淫 · 망妄 · 기어綺語 · 양설兩舌 · 악구惡口 · 탐貪 · 진瞋 · 치癡), 다섯 가지 장애(감각적 욕망 · 성냄 · 혼침과 졸음 · 들뜸과 회한 · 의심) 등

는 화의 형태이고, 미세한 짜증 · 지루함 · 인색 · 우울 · 불안 등도 정신적 불만족이 있는 화다. 또한 화는 자신에 대한 화와 타인이나 사물에 대한 화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개개인의 경쟁이 심화되어 타인과의 비교에서 생기는 자기를 향한 화가 늘고 있다.

이러한 화는 여타의 심리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연기적 현상이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 짜증이나 우울이 습관처럼 마음의 성향이 되었더라도 있는 그대로 화가 일어남을 살펴야지, 만약 자신과 화를 동일시하여 자책하거나 절망한다면 화에 화를 더하여 괴로움의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격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 화는 탐욕이 충족되지 않는 불만족으로부터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탐욕이 충족되도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두렵고 초조해 화가 일어날 수 있다. 보통 화가 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켜 화에서 벗어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복은 탐욕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또 다른 탐욕을 불러일으켜 화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화를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 뿌리인 탐욕을 버려야 한다.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에서 서술했듯이 탐욕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기므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일으켜 모든 현상들을 조건에 의지해 임시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무명無明이 밝아져 탐욕을 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불안함도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화의 일종이며, 이 불안함의 원인은 안정된 삶에 집착하는 탐욕이다. 그런데 모든 현상은 무상하여 불확실하며 내 의지대로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집착을 끊고 탐욕을 버림으로써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가며

이상으로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성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서 시작하여 사성제로 귀결歸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온, 12처十二處, 18계十八界 외 모든 형성된 법[有爲法]은 고성제에, 십이연기의 일어남과 정신의 법 중 해로운 법은 집성제에, 십이연기의 소멸과 형성됨이 없는 법[無爲法]은 멸성제에, 37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곧 정신의 법 중 유익한 법은 도성제에 포함된다. 사성제는 불교 수행의 핵과 같아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어떠한 고苦에도 바로 적용해 소멸시킬 수 있는 이 가르침을 염두念頭에 새기고 정진하여, 모든 유정有情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발원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서적〉
『디가니까야3』 - 각묵스님 옮김, 2011, 초기불전연구원
『맛지마니까야1』 - 대림스님 옮김, 2012, 초기불전연구원
『불교의 초석 사성제』 - 프란시스 스토리, 2003, 고요한 소리
『사성제 -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 일묵스님, 2020, 불광출판사
『초전법륜경 · 무아경』 - 범라스님 편역, 2000, 도서출판 화은각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 일묵스님, 2021, 불광출판사

불일암의 넉넉함

– 불일암 덕조 스님

무공 / 사교과

강원생활의 누적된 피곤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송광사로 향했습니다. 송광사는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하나인 승보 종찰의 근본도량이자, 가장 많은 불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송광사 불일암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와 법정 스님 맏상좌이신 덕조 스님을 뵈러가게 되었습니다. 송광사로 가는 내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으려 했지만 들떴습니다. 법정 스님 책을 읽으며 상상했던 그 장소…. 법정 스님이 머무시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송광사 불일암…

송광사에 도착하자 기분 좋은 바람과 따뜻한 햇살이 저와 도반스님들을 반겨 주었습니다. 조계산은 참으로 다양한 색의 향연을 펼쳐, 카메라를 들이대 셔터를 아무리 눌러도 육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은 담을 수 없었습니다. 송광사에서 점심을 먹고 신심을 내어 대웅전과 관음전, 조사전 참배를 한 뒤 불일암으로 향하였습니다.

불일암이 의지하고 있는 조계산이 주는 느낌은 안도와 풍요였습니다. 바스러지는 낙엽을 밟으며 걷는 길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무소유의 홀가분함을 전하는 오솔길을 한걸음 한걸음 걸었습니다. 흙냄새를 맡으며 쭉쭉 뻗은 대나무들의 모습에 눈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송광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길을 따라 걸으며 사찰 곳곳에 배어 있는 스님의 향기를 음미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불일암은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법정 스님이 계시던 불일암에 드디어 내가 와보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순도순 모여 있는 푸성귀들이 가득한 밭, 깨끗하고 정갈하게 정리된 정랑, 반듯하게 쌓아올린 장작더미, 법정 스님이 손수 만드신 '빠삐용 의자'와 바로 전에 벗어 두신 것 같은 고무신 한 컬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덕조 스님께서는 첫인사말로 "많이 기다렸어요" 하시며 여름내 농사의 흔적이 묻으신 검게 그을린 얼굴에 푸근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불일암을 둘러본 뒤 덕조 스님께서 건네신 차를 마시며 덕조 스님의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빳빳하게 풀 먹여진 짙은 승복에서 선승의 칼날 같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사유하며 고심했던 것에 대해 덕조 스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Q 운문사는 많은 대중스님들이 수행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대중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살림살이를 잘하고 사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가장 힘든 일이 인간관계입니다. 어떤 일에 화가 나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중 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이 달라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고,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다 다른 모습으로 살다가 '출가'라는 대 명제 속에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수행이란 인욕과 하심이 없으면 살기 힘이 듭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인내력을 테스트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욕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열반의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번뇌 망상이 생기면 삭발한 머리를 만져보며 출가수행자인 것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다 수행으로, 공부로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행자는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인상 쓰며 살려고 출가한 것은 아닙니다. 대중 속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 보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대중이 다 좋아합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해관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기심으로는 화합할 수 없고 대중에 있을 때 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대중이 곧 스승이고 복전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자에게 대중이 도반이고 상하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수평관계가 올바른 것이지요.

인도 남부에 조화로우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오로빌Auroville' 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43개국의 3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곳에 사는 오로빌리언은 국적, 종교, 언어, 문화와 피부색도 다른데 개인의 탐욕을 버리고 모두의 행복을 위해 수평관계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름을 부르며 평화롭게 살아요.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이유는 하루 6시간 정도를 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커뮤니티가 100개가 넘는데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행복하게 명상 수행을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오로빌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송광사 '여름 수련회' 방식의 수련을 2회했습니다. 참선, 바루공양, 108배 등 가르쳐 준대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받아들이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텅빈 마음으로 배우려는 눈빛!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은 분별하지 않으니 바로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로빌리언들은 아침을 먹고 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 울력할 일이 있으니 같이 할 사람은 동참해 달라' 고 울력을 발표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울력을 말하고, 공동체 사람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기쁘게 공동의 편리와 행복을 위해 사는 공동체의 삶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시켜서 하는 울력이 아니고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대중' 이라는 말을 앞세우고 뭐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편이죠. '오로빌' 의 정신은 상호 존중으로 의사결정은 일방통행이 없고 뭐든지 토론을 합니다. 일이 발생하면 회의를 붙여 결정합니다. 그곳에서는 토론 할 때는 인격 모독과 내 의견과 다른 점을 지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장이 정당하다면 끊임없이 이해와 설득시켜야 합니다. 정해진 토론시간 안에 회의를 끝내지 못하면 그 다음날 또 하는 방식입니다. 빨리 끝내는 걸 중요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일점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Q 대중에서 살다 보면 간혹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Z세대를 아세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는 출판사 편집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 사고를 모르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연수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에 출근할때 길에서 마주치면 부하직원과 아는 척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근무하기 전에는 회사원이 아닌 개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MZ세대는 일과 개인의 삶도 균형감 있게 잘 하자는 '워라벨', 또는 'Work & Life Balance' 의 마인드가 철저합니다. 직장에서 일과 개인의 삶을 구별하는 것을 결코 이기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본인의 업무 일을 시키면 확실히 하지만, 회사 업무 밖의 일들은 거부한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윗사람이 요구한 부당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MZ세대는 사회적, 공적인 일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용돈을 아껴서 기부를 한다거나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기적인 '개인주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MZ세대는 할 것과 안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고, 두리뭉실하게 안할 것도 하며 좋은 게 좋은 거다 해버리죠. 할 것과 안할 것이 분명한 것, 이것이 불교적이라 봅니다.

Q 스님 탐방을 준비하면서 여러 관련 자료를 찾아 봤는데, 스님께서는 큰 스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날 승가에서 은사, 상좌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질서와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질서는 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시간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 상좌가 6명인데 서로 존중해 주지 않으면 신뢰가 깨진 것이 됩니다. 스승과 제자는 남남으로 만났습니다. 스승은 제자를 인도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

다. 그 속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의지하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스님과 상좌랑 꼭 같이 살아봐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살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봐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봐야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생기고 서로에게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야만 스승과 제자로서의 확실한 믿음이 형성된다고 봐요. 가끔 큰절에 가면 어른스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상좌랑 같이 사냐고 합니다. "안 힘들어?" 이런 추세예요. 상좌도 안 힘들겠어요? 은사스님한테 맞춰 가며 살아야 하는데 힘들겠죠. 일방통행이란 없어요. 저는 은사스님을 시봉할 때 시키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힘들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솥을 아홉 번을 옮겨 걸었다는 구정선사九鼎禪師 얘기도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스님이 나를 수행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홉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힘들지 않게 받아들이지요.

차담을 마친 뒤 스님께서는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음꽃을 줍다』라는 스님께서 쓰신 글은 마음의 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글과 어우러져 있는 멋진 사진들을 보며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스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라고 묻자 "그럼요, 허허" 너털웃음을 보여주십니다.

밖으로 나와 법정 스님께서 아끼시던 후박나무에서 법정 스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봤습니다. 후박나무는 겨울채비를 하듯 낙엽을 떨구어 내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머쓱하게 웃으시며, "스님들에게 낙엽을 보여주려고 마당을 안 쓸었어요." 스님의 흐트러짐 없는 차분한 모습에서 침착할 줄 아는 삶의 연륜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눈에 담은 불일암의 모습은 소욕지족의 넉넉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며 나누지 못한 마음속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지우고 싶은 과거를 참회하고 새롭게 현재를 시작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여 자신과 세계를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거칠고 경솔하지 않은, 온몸으로 전해지는 넉넉함…

법정 스님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가득 남긴 채 스님께 인사드리고 불일암을 내려왔습니다. 송광사의 푸근함과 불일암의 넉넉함을 가득 담아 운문사로 돌아왔습니다.

연기법

안정 / 사집과

미우나 고우나
어깨를 맞대고는
이 어깨와 저 어깨는
연기법을 경험한다네

安정

화엄법계와 연기법

이시우 / 서울대 명예교수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공기를 마시고, 양식을 얻으며, 노폐물을 자연으로 되돌린다.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햇빛을 받으며 또 하늘의 수많은 별들로부터 빛을 받으며 살아간다. 별들은 별들 사이에 중력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이처럼 우주적 화엄세계에서 만물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생멸을 이어간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적 수수(주고받음)관계를 연기관계라 하며, 이것은 우주만유宇宙萬有의 존재이법에 해당한다. 이런 연기관계는 각 개체가 지닌 정보 전달이 개체들 사이에서 쌍방으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수수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12연기에서는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 유로 인하여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하여 노사가 있다." 또는 역순으로 "노사로 인하여 생이 있고, 생으로 인하여 유가 있고 … 식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무명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12연기는 쌍방으로 정보가 동시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연기관계로 인간세계에 국한된 특별한 경우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연기관계는 단수(一者)가 아니라 복수(多者)관계로 집합集合(집단)적이다. 이러한 거대 집단이 바로 상즉상입相卽相入하는 육상원융六相圓融의 화엄세계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조화로운 연기緣起의 세계이다.

제2의 부처님이라 불리는 용수龍樹보살의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언급되는 제법실상諸法實相(모든 사물의 진실한 본성)의 반야바라밀(궁극적 지혜의 완성)도 바로 이런 우주적 연기의 세계에서 얻어진다. 홀로 고립된 상태에서 선禪을 수행하는 사람은 인간사회와 분리된 일자一者 상태이므로 올바른 연기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연기관계는 다수(집단)를 통해 이루어짐이 가장 안정하며, 고립된 개체(一者)의 존재는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해당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득도하신 후 최초로 설한 경이 『화엄경』이다. 부처님

이 6년 동안 고행하시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부처님은 지상의 만물들처럼 별들도 태어나 지나다가 사라져 가는 생주이멸을 생각했으며, 그리고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광대한 우주의 구조를 생각했다.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이 모여 넷이 되듯이 별들도 서로 모여 집단을 이루며 화엄세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별의 집단은 서로 모여 더 큰 집단을 형성해 가는 계층적階層的 집단구조를 생각했다. 이것이 우주 인드라망이라는 화엄법계의 연기적 구조이다.

『화엄경』의 「화장세계품」에서 수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은하에 해당하는 향수해香水海(世界種)들이 큰 집단을 형성하면서 거대한 화장장엄세계華藏莊嚴世界를 형성해 간다. 그리고 「여래수량품」에서 집단들이 모여 점차 더 큰 규모의 집단을 형성해 가는 계층적 구조가 제시된다. 즉 인간이 존재하는 사바세계,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극락세계, 가사당세계, … 난초과세계, 장엄해세계, 월지불이 계시는 경광명세계, 마지막으로 가장 큰 규모의 현승불賢勝佛이 계시는 승연화勝蓮華세계이다. 이러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이 생각한 거대한 우주법계이다. 승연화세계는 오늘날 천문관측에서 알려진 우주보다 엄청나게 더 큰 규모의 초우주超宇宙에 해당한다.

그러면 우주만유의 연기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지 살펴보자.

첫째, 만물은 끊임없이 주고받음의 연기관계를 이루므로 고정된 실체란 존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항상恒常하지 못한 무상無常을 공空이라 한다. 따라서 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개체가 지닌 자성自性의 연기적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연기면 공이고, 공이면 연기이다.

인간의 경우에는 고통과 즐거움, 아름다움과 추함, 행幸과 불행不幸, 밝음과 어두움, 삶과 죽음 등등 양자 중에서 어느 한 쪽에 집착하는 버릇이 있다. 연기의 세계에서 고정된 것은 존재하지 못하므로 즐거움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연기의 세계에서 두 극단이 나타남은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한 쪽에 집착함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즐거움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처럼 비동시적 동거성同居性으로 고통이 나타나면 즐거움이 뒤로 숨고, 즐거움이 나타나면 고통이 뒤로 숨는다. 〈미/추〉, 〈생/사〉, 〈명/암〉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양변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중도中道라 한다. 집착을 지닌 인간 세계에서는 연기면 공이고, 공이면 중도이고, 중도면 연기라는 삼각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낮은 아래쪽 바닥으로 내려와 머물려 하고, 물은 낮은 아래로 흘러가며, 철은 녹이 쓸어 점차 자취를 감춘다. 아름다운 조각품을 바깥에 두면 비바람을 맞으면서 점차 그 형태가 바뀌면서 사라져 간다. 이러한 변화는 아름다운 초기의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된 무질서 상태로 이행해가는 진화의 이법이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법칙이다. 이처럼 만물은 들뜨지 않고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진화한다. 이런 상태를 바닥(기저基底) 상태라 하며, 이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이다. 만물은 이런 안정성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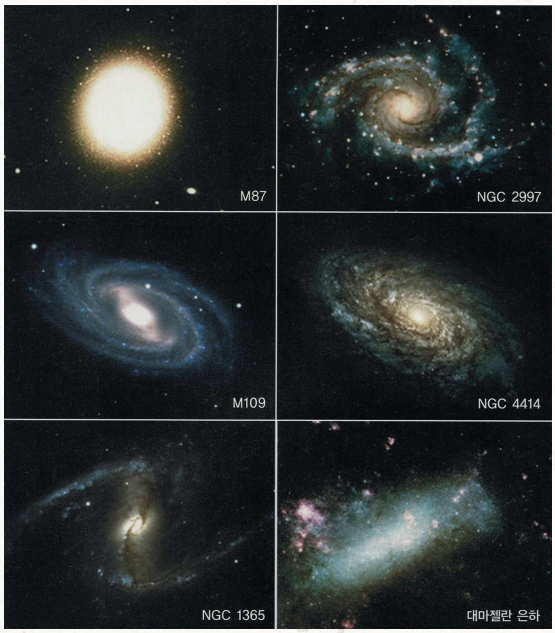
定性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화한다. 이런 안정성은 선정禪定의 정定의 상태에 해당한다.

셋째, 연기의 세계에서 만물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위적有爲的으로 조작하며 진화하는 경우는 없다. 우주만유는 조작하지 않는 무위적無爲的 과정을 통해 연기적 관계를 이루어간다. 인간의 경우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많은 에너지를 고의적으로 소모하지만 자연 만물은 에너지를 최소로 소모하면서 무위적으로 진화해 간다. 이것이 최소작용의 원리이다. 이런 무위성無爲性은 고의적 조작이 없는 무작無作을 근본으로 한다.

넷째, 만물은 각자가 고유 정보를 지닌다. 자신을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그 개체의 불안정성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여인이 짙은 화장을 하고 특별한 옷차림을 한다면 이 여인을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며 특별한 상相을 지닌 여인으로 안정성보다 불안정성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짙은 화장이 사라지거나 옷차림이 바뀌면 개체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에 증감이 생기면서 불안정해진다. 일반적으로 개체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적을수록 그 개체는 안정된 상태로 이어진다. 그리고 특징(정보)이 많을수록 불안정하고 특징(정보)이 적을수록 안정하다. 이처럼 개체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최소화 될수록 그 개체는 더욱 안정된 이완弛緩상태로 이어진다. 여기서 이완이란 해삼처럼 푹 퍼진 상태를 뜻한다. 뜨거운 물속에 몸을 오래 동안 푹 담궜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몸이 나른해지면서 푹 퍼지는 상태에 이른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완상태이다.

만물은 연기적 수수과정을 통해 자체를 기술할 수 있는 정보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진화하며 이완된다. 이런 이완상태가 바로 나라는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무아無我의 상태이다. 이완상

안드로메다 은하



태에서는 너와 나의 분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一者)이다. 불교의 화엄세계는 바로 이런 무아無我의 이완세계이다. 산천초목이 그러하고 수많은 별들의 세계가 그러하다.

다섯째, 만물은 겉으로 차별이 있는 듯 하나 실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연기관계를 이어가는 평등한 존재들이다. 겉보기에는 분별과 차별이 있어 보이나 실제는 평등한 화엄세계를 이루고 있다. 불평등이 생기면 연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평등관계로 이어가는 것이 자연의 화엄세계이다. 인간은 욕심과 집착심 때문에 불평등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만물의 겉모습에는 차별이 있어 보이나 존재가치는 동등한 것으로 이들의 평등성은 무이無二로 차별이 없다.

여섯째, 별은 크기와 색깔이 다양하고 삶의 방식도 다양하다. 인간의 경우에도 성인聖人과 위인偉人이 있고, 천박한 소인小人도 있다. 이처럼 연기의 세계에는 다양한 특별한 존재들이 많다. 이런 특수성은 모난 돌이 정 맞듯이 타자와의 연기적 관계를 통해 특수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보편적 형태로 이행해 간다. 특별하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불안정한 상태로 적극적인 연기관계를 통해 안정된 상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특수성이란 상相이 점차 사라지면서 무상無相에 이르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주만물은 연기적 수수과정을 통해 공성空性의 무상無常, 안정성의 정定, 무위성의 무작無作, 이완성의 무아無我, 평등성의 무이無二, 보편성의 무상無相의 경지에 이른다. 이들을 우주만물의 존재이법으로 연기법緣起法이라 한다.

불교에서 언급되는 열반涅槃과 깨달음은 바로 이런 연기법의 경지에 이름을 뜻한다. 따라서 집착이 많은 인간이 추구하는 열반과 깨달음도 궁극적으로 위의 6가지 연기적 원리를 만족하는 경지이다. 여기서 열반이나 깨달음은 용수龍樹보살이 지적했듯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기적 변화를 이어가는 것(空)임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열반과 깨달음을 공空이 아닌 고정된 특별한 초월적 경지로 본다면 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적 불교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적 불법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유에 적용되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우주철학宇宙哲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이론물리학 석사 졸업, 미국 웨슬리안(WESLEYAN)대학 천문학 석사, 호주국립대학교 관측천문학 이학박사, 경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수를 지냈다. 대표저서로 〈천문관측 및 분석〉 〈은하계의 형성과 진화〉 〈태양계 천문학〉 〈별과 인간의 일생〉 〈우주의 신비〉 〈별을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별을 안다〉 〈똥막대기〉 〈천문학자가 풀어낸 금강경의 비밀〉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천문학자, 우주에서 붓다를 찾다〉 〈별처럼 사는 법〉 〈붓다의 세계와 불교 우주관〉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연기와 우주인드라망〉 〈화엄법계와 천문학〉 등이 있다.

길

정연下 / 사집반

호거산 아래 운문사 두 그루 은행나무는 황금빛으로 물들어 오랜 세월에도 흔들림 없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수행 길에 들어선 나에게 커다란 환희심으로 다가옵니다.

회주스님 생신날 운문사에 꼭 합격하길! 간절한 마음으로 원서를 넣었습니다.
이 길에 들어선 만큼 '온전한 수행으로 열매 맺으리라' 라고 굳은 신심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선 치문 길은 속세에 찌든 때벗기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승가의 엄한 계율과 빈틈을 주지 않고 습의를 가르치는 상반스님들, 그 속에서 '나' 에 대해 생각해 볼 틈도 없었습니다.

늦은 출가로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칠 때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은 황금빛으로 되어 있는 불국토였습니다.
돌 하나하나 발에 밟힐까봐 작은 돌맹이마저도 주워서 고르게 한 땅, 비가 와서 움푹 파인 곳에 흙을 부어서 메운 자리, 줄을 세워 심어 놓은 나무, 꽃동산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행으로 스님들이 일궈 놓은 도량이 늘 나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옛 시절 보릿고개가 있었다는데 그 흔적은 찾을 수 없을 만큼 운문사 도량은 아름답습니다.
글이나 말로 들었던 승가의 수행을 직접 보고, 교수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에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틈새를 놓치지 않고 좋은 말씀해 주시는 어른스님, 대중스님들은 시시처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전통강원이어서 한문 경전으로 공부하는데, 한자공부가 제일 어려운 난관이었습니다.
치문반일 때 주지스님께서는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몇 번을 다시 고쳐 쓰게 하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제는 한자 하나하나 눈 맞춰가며 읽고 경전을 외우기도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저에게 큰 지침이 되어 주신 주지스님께 감사합니다.

쉬는 날이면 일찍 아침 공양을 하고 장군평에 염불 연습하러 갑니다.

무작정 소리 내어 염불하면 되는 줄 알았던 염불은 염불 교수스님의 가르침으로 대종소리처럼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특히, 호거산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염불하면 자연이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 빨갛게 익어가는 감처럼 저도 대중 속에서 익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스님들이 모여 공양하는 발우공양 때도 처음에는 습의 익히느라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발우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 공양이 내 앞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공덕을 생각하면 그저 고개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上求菩提 下化衆生' 의 큰 서원을 세우며 수행 길에 들어섰는데, 회주스님의 '즉사이진 卽事而眞, 매사에 진실하라' 는 말씀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천금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길입니다.

두 그루 은행나무는 황금단풍으로 대지를 덮고
청정한 법신 되어 부처님 법에 가까이 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수행의 길로 들어갑니다.

보리수 씨앗
향그러움 가득 담아 피우면

맑은 연못 연꽃뿌리
추운 겨울 아랑곳없으니

호거산은 묵묵히
운문의 법향 햇살 되어 비춥니다.

보물찾기

선혜 / 치문반

아침저녁으로 내린 서리에 땅들도 숨죽이며 봄을 기다리던 작년 겨울 늦자락.
감사하게도 은사스님께서는 나의 의사를 물으시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울고 웃었던 나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강원 생활이 부담스러웠다.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더 이상의 선택지는 도피처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스님, 저 운문사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운문사에 가려합니다."라고 답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 그것이 그때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지금 나는, 늘어뜨린 꽃머리가 어여쁜 능소화와, 향기로써 초가을 도량을 장엄하는 금목서가 아름다운 운문사에서 매일이 처음 같은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

49일이 아닌 490년과도 같았던 치문 첫 철이 지나 가을, 겨울이 왔음에도 두려움은 여전히 눈치도 없이 들고나며, 존재감을 일상의 이곳저곳에서 과시하곤 한다.
이제껏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삶만 살았다.
대중을 뇌고롭게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빈틈없는 강원생활은 하루하루가 두렵고도 벅찼다.
육체는 한계에 다달아 크고 작게 지어진 실수들에 여유와 안정을 잃어갔다.
게다가 무사히 잘 해내고 싶은 욕심은 두려움만 없다면 더 잘 할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두렵지 않은 상태"에 대한 집착.
피하고 미워할수록 만나고야 마는 '원증회고怨憎會苦'이다.
스스로가 일부러 만든 고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사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나는 운문사에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양도 잘하고, 발우를 잡은 손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다. 또한 서툰 법고 연습을 이어가며 수업시간에 졸지 않으려 애쓸 수 있었다.
무엇보다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어 용기를 내어 출가의 길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정말로 두려움은 고통인걸까?

애초에 두려움을 원동력으로 해낸 수많은 것들은 어째서 무시되어졌을까?

그것은 아마도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일 것이요.

익숙지 않은 것들을 불편히 여기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고통으로 여기는 습관들 때문이었으리라. 또, 틈만 나면 현실에 안주하려하는 게으름이 지어낸 나의 분별심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저런 마음 속 갖가지 번뇌들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고통으로 여기게 하였다.

운문사에서, 그것도 치문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비단 두려움뿐 아니라 다겁에 걸쳐 꼭꼭 숨겨놓았을 또 다른 '고苦' 라 이름붙인 보물들을 찾아내기 그 어느 때보다 좋을 때다.

생활 속에서 내가 만들고 애착해온 번뇌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이다.

현재에 내가 지은 말과 행동, 생각이 인因이 되어 미래의 과果가 됨을 믿는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밀밀히 살피는 것에 집중할 것이요. 과보를 가려 받으려는 욕심은 내려놓고 걸림 없는 마음으로 내면을 수렴하는데 힘 쓸 것이다.

'장양성태長養聖胎' 라

수행자는 무릇 우리가 품고 있을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 했다.

뜻 깊은 대중스님들의 도움과 어른스님들의 보호 아래 아주 조금씩이라도 좋은 습관에 나를 물들이며 남은 치문의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싶다.

두려워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참회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운문사 스님이라 행복해요 ^^

천진불 회주스님! 생신 축하드립니다_()_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배려, 인내, 화합으로
따뜻한 겨울

편집부

층층이~ 쌓여 있는 절임배추
켜켜이~ 정성스럽게 양념발라
대중스님들께 공양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화엄반스님! '졸업회향 상차림'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운문 4년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같이 성불成佛 하십시다!
신년 성불도 놀이, 성불 4개만 나오면 성불 합니다~

치문반 스님들의 휴식~
따뜻한 겨울 햇빛 쬐기~

저 폼 멋지죠? 추운 겨울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활기차게 태권도 배워요!

화엄반 스님, 4년의 운문 정든 도량을 떠나며
도량청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_()_

동지 팥죽 새알처럼 동글동글~
내 마음도 동글동글~

병病, 고苦, 그리고 심心

이재 / 사집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病, 苦, 그리고 心 이라는 제목으로 차례법문을 하게 된 사집반 이재입니다.

사바세계는 고통의 바다이고 수행의 목적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중생의 괴로움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즉, 생로병사에서 비롯됩니다.

이 생로병사의 괴로움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고타마 싯타르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왕궁을 나왔습니다. 어느 날 나쿨라라는 장자가 부처님께 자신은 늙고 병들고 근심과 괴로움이 많다며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에 의지하면 잠시 동안만 즐거움이 있을 뿐 몸에는 병이 있더라도 마음에는 병이 없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도 한 시련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시작된 고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한 보살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스님들께서는 몸에 병이 생기면 부처님께서 다 낫게 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늦게 불교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이 세상 누구보다 출가한 스님들을 보면 제일 부럽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날 이후 새벽시간만 되면 병원 내 법당에 가서 부처님만 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보면서도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은 혼미하여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운문사로 돌아와서도 많이 아프던 저를 위해 도반들은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양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챙겨 주고 따뜻한 물, 이부자리, 심지어 저의 소임까지도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우리 도반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했던가? 진정 도반의 아픔을 알았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픈 나를 위해 애써 주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했던가?' 를 생각

했습니다.

『유마경維摩經』 중 제5장 문수보살의 병문안에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고매하신 분이시여, 몸이 아프시다니 좀 견딜 만 하십니까? 세존께서도 혹시 고통이 크지는 않은지, 예사로운 병인지, 아니면 심각한 병인지, 여간 궁금해 하지 않으십니다. 그대가 아픈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습니까? 그 상태는 어떠하며 언제쯤이면 병이 낫겠습니까?"

유마가 답합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음이 남아 있는 한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는 한 제 아픔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아픔이 남아 있는 한 제 아픔 역시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혹시 모든 사람들이 병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제 병도 씻은 듯이 낫겠지요."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던 유마거사를 생각하면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에 몸부림칠 줄 만 알았지 나 아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진정 알았던 것인지, 알려고는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나는 생노병사를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지 않았던가? 모든 것은 苦에서 시작되는데 몸이 아프니 마음조차 병든 것으로 알아 깊이 통찰하지 못하고 이 몸은 무상하다는 것도 잊고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병에 걸린 보살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합니다. "사실 병이란 과거 이래 실제實際와는 거리가 먼 뒤바뀐 업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헛된 분별로 인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진리에 비추어보면 병에 의해 고통 받는 존재가 실재로 있지 않습니다. 유마거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기므로, 영원 · 불변한 '나'는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화들로부터 저 또한 이 병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건강했을 때 아픈 도반을 간호했었던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저의 몸은 건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음전 부전을 살면서 받은 모든 것들을 도반스님들과 여러 대중스님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어른스님들께 회향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업業

보명 / 치문반

지난 10월 13일은 치문반이 처음 논강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치문반 가을부터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논강論講'을 시작합니다.

처음 논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난독증難讀症이 있어 글을 읽는 것도, 쓰는 것도 느리고 어려워서 평소 도반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도반은 한자 난자難字를 찾아 주고 또 다른 도반은 경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해서 논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반들의 순서가 지나가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고 글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빠뜨리고, 연습한 대로 하지 못해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운문사 생활은 좋은데 제 스스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니, 도반들과 같이 배우며 공부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이 저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도 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상반스님, 도반스님이 걱정하시며 "힘내세요!"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수스님께서는 "왜 출가했어요?"라고 물어 보셨고, "마음 공부하러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인연이 있어 운문사에 왔으니 열심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첫 논강은 자신 있게 못했지만 저는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문사 도량에는 어른스님, 상반스님, 도반스님 등 많은 신장님들께서 매일 매일 도와 주시고 살펴 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스님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논강을 시작한다는 것은 '학인'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첫걸음입니다. 불법을 세상에 전하여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이로운 어엿한 불제자가 되기 위하여 배움에 더 힘쓰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도 서서히 마음의 근육이 자라남을 느낍니다.

남들처럼 잘 하지는 못해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황소처럼 뚜벅뚜벅
쉬지 않고 정진하네.

업아 업아 나의 업아
좋은 업도 나의 업
나쁜 업도 나의 업

업아 업아 나의 업아
밝은 업도 나의 업
어두운 업도 나의 업

폭포처럼 강물처럼
친구 되어 흐르지만
물길 끝나는 그 곳에서
보현보살님을 만나네.

『소연경』, 『기세인본경』을 통해 본 불교의 세계

대겸 / 사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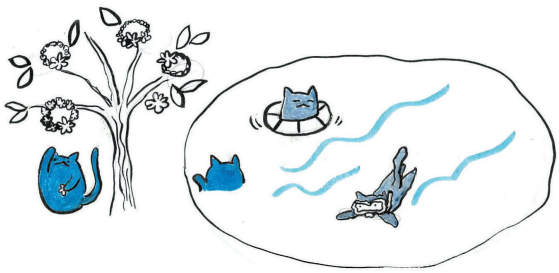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바실타와 바라타

『소연경』은 이 중생세계에 어떤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계급이 형성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생은 본래 생각으로 먹이를 삼고 허공을 날아다니다가 욕계에 떨어져 점차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싸움과 도둑질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각종 계급이 등장했고, 부처님께서는 그중 세간을 떠나 구도의 길을 가는 사문沙門이 가장 수승한 종성宗性임을 설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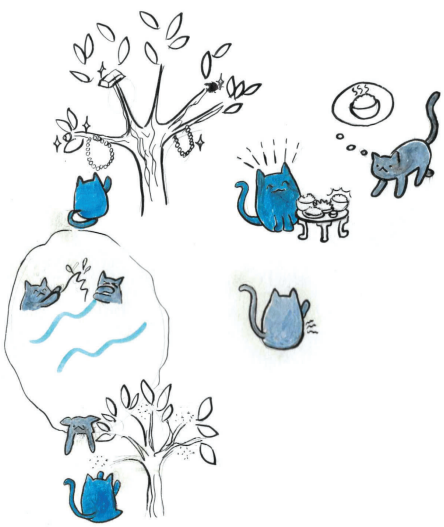
그림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두 고양이는 『소연경』에 나오는 바라문 종족의 비구 바실타와 바라타를 의인화 한 것입니다. 당시 바라문족은 스스로를 가장 존귀하다고 여겨 다른 계급에 대한 차별을 서슴지 않았고, 계급이 더 낮은 석가모니 부처님 밑으로 이 둘이 출가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출신 혈통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정진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위 그림은 '그렇다면 고양이도…?' 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소연경』의 내용에 고양이를 대입해 상상해 본 것입니다. 누구든 해탈할 수 있다면 고양이라고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운문사에 상주하는 두 고양이, 보리와 아욱이는 이따금씩 그야말로 참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니까요. 날이 추워지면서 그리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도량 어딘가에 명상에 잠긴 고양이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흔연해집니다.

울다라구류주에서 볼 수 있는 출생과 성장, 죽음의 모습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울다라구류주



『기세인본경』은 불교의 광대한 세계관을 드러낸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천지의 발생과 파멸에 관하여, 또 중생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주의 생주이멸生住異滅, 즉 모든 사물이 생기고, 머물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모습을 설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 그림은 수미산의 북쪽에 있는 울다라구류주鬱多囉究留洲를 그린 것입니다. 울다라구류주는 중생이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가장 뛰어나고 오묘한 세계라고 합니다. 생각만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무에 갖가지 즐거움을 선사하는 물건이 열리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와는 사뭇 다른 곳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사람 대신 고양이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일주일간의 부동심不動心

– 화엄반의 문수선원 선방 체험

선일 / 대교과

푸르던 산들이 울긋불긋해지던 계절, 알싸한 찬바람이 휘감고 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던 시절에 58회 운문사 학인스님들은 가깝지만 멀기만 했던 문수선원에 입방하였습니다.

치문부터 화엄까지 졸업여행비도 꼬박꼬박 내고, 여행회계 소임도 뽑아 차곡차곡 여행을 준비했지만 covid-19로 '인도 성지순례' 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withcorona라고 하여도 여전히 매일 천 명을 넘어서는 감염자수에 26명이나 되는 도반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여행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아쉬움 달랠 길 없던 차에 문수선원에서 정진하면 좋겠다는 도반스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 스님들의 동의와 회주스님과 어른스님들의 지지, 문수선원 도감스님의 허락까지 운명적으로 저희에게 선방에서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선과 화두를 글로만 접했지 실참은 해본 적 없기에 화두는 무엇이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것이 화두였습니다.

선방에 공부하러 가기 전 담임인 주지스님께서는 고봉화상의 선요의 몇 구절을 알려 주시며 고양이를 그려나가듯 화두를 들어서 그리고 또 그리다보면 갑자기 야옹하고 고양이가 튀어나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결연한 각오가 내비치듯 단단히 싼 바나나박스 하나씩 챙겨들고 문수선원 문지방을 들어섰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좌복에 이름표도 달고, 과일고임새도하고 사지마지도 올렸습니다.

큰 방의 고요함 속에 경건함은 굳은 의지를 다지게 했습니다.

어떠한 복인지는 모르겠으나 선방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저희를 위해서 도감스님께서는 입승스님, 부전스님, 서기스님, 원주스님, 공양주스님을 모셔와 든든히 외호해 주심에 저희는 오롯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입승스님께서는 선방생활청규와 앉는 자세, 선방에서의 마음가짐 등 초심자인 저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선방생활에 대해 세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큰 방에 면벽하고 앉아 깨달음을 향한 열정으로 부동하고 있는 도반스님의 모습은 어느 수좌스님들 못지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몸 조복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분명 졸지 않았지만 졸고 있고, 망상한적 없지만 늘 망상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살림살이가 없다면 선방에 앉는 것이 그냥 눈감고 앉아 허송세월하겠다고 느끼며 다시 한 번 발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박 7일의 문수선원 결제는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 선과 수행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모자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4년의 운문사 기간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지 않았는가.' 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일정이었기에 이 이벤트가 58회만의 코로나 특별안거가 아닌 대대로 이어지는 전통이 되길 고대해봅니다.

코로나결제라는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 주시고 밖에서 든든히 외호해 주신 회주스님과 어른스님, 소임자 스님, 그리고 대중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수행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할 수 있는 여일정진如一精進하는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

– 제71회 전국 지도자 연수회 –

교화부

이번 '사단법인 동련' 에서 개최하는 제 71회 전국 지도자 연수회의 주제는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 여행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림책 속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느끼며, 여행을 떠나 보자라는 취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그림책 세계로 떠나는 항공티켓과 마음여권을 나누어 주고, '운문에어' 항공사를 연출했다. 기내방송, 기내식 등 연수회를 통해 실제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화부와 '동련' 이 함께 준비했다.

이번 연수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용정운 작가와 그림 talk 마음 talk〉 이라는 주제로 용정운 작가님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는 인터뷰 방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으며 진행되었다. 특히 용정운 작가님은 일러스트 작가 중 몇 안 되는 불교 일러스트 작가이며, 작가님의 그림 속 동자승들의 행복하고 미소 짓는 표정을 통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고요한 마음을 전한다. 이어서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를 하였는데 그림 명상도 제작한다 했다. 그림과 음악 그리고 짧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을 보며

고요히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일상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명상영상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작가님의 저서인 『걱정하면 지는 거고 설레면 이기는 겁니다』에서 평범한 일상에 숨겨진 소소한 깨달음을 찾아가는 명상 웹툰 책 소개와 작가님이 추천하는 다양한 책 소개를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두 번째 강의 〈How to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에서는 대면으로 이재윤 강사님과 함께 그림책을 통한 명상을 배웠다. 이재윤 강사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제로 극복했던 방법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책을 통한 명상이라 했다. 그림책 명상 지도에 앞서서 주요한 점으로 그림책을 선정하는 방법과 명상 계획안을 강의했다. 그리고 다양한 실습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재윤 강사님의 『정말 멋진 날이야』를 읽어 주었는데 그림과 읽어 주는 강사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였다. 이 그림책에서는 일찍 세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어린 주인공의 슬픈 마음이 점점 치유되고 밝아지며, 언제나 내 곁에 반려견이 있음을 알게 되는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 된다. 그림책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림으로 또는 소리만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떠올리며 감상을 할 수 있었다. 그림책이 주는 마음의 세계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번 연수회 프로그램을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정적이었다. 하지만 동련 진행자의 능수능란한 진행과 스님 한 분, 한 분 참여할 때마다 활동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다함께 체험하며 그림책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선물 받는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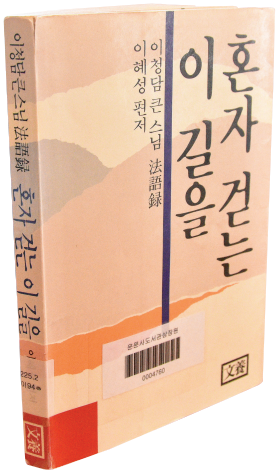
Zoom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실이 되었음을 다시 실감하며 앞으로 불교 포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학인스님들을 위해 운문도량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열어 준 사중 어른스님들께 감사함이 더해지는 날이기도 했다.

『혼자 걷는 이 길을』을 읽고…

혜성 스님 편저

향광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마음에 일이 많아질 때 읽는 책이 있다. 혜성 스님의 '혼자 걷는 이 길을' 이란 책이다.

이 책은 청담 큰스님이 40여 년간 행하신 수천 회의 법문 가운데서 그 제자인 혜성 스님이 3백여 편을 가려 뽑은 잠언집이다.

한국 근대 불교계의 중흥조라 할 청담 큰스님은 한국 불교 종단의 대표요, 세계 불교의 지도자이셨으며, 한 도인道人이셨다. 인욕보살, 원력보살, 대승보살이라고 불린 청담 큰스님은 자비의 원력으로 1954년부터 일본색이 짙었던 한국 불교 정화 운동을 지도하셨다.

청담 큰스님의 수많은 업적과 발자취 중에서도 당신의 수행력에 근간이 되는 선의 사상과 대승을 위한 실천적 수행력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큰스님의 법어가 '생명의 목소리' 라는 책 속의 비유는 지당한 비유가 아닐까 싶다.

책의 구성은 1장 인생이 덧없을 때, 2장 생각하며 행동할 때, 3장 망상에 헤맬 때, 4장 진리와 더불어 살 때, 5장 마음의 밭을 갈 때, 6장 삶의 보람을 찾을 때, 7장 대자대비할 때, 8장 인생 시초, 9장 자화상으로 입산 50년을 돌아보며, 그리고 청담 조사 행장기로 구성되어 있다.

책은 첫 장부터 차례대로 읽지 않아도 결코 문제 될 것 없다. 무심코 펼친 페이지를 읽으면 바로 그 순간이 법문을 듣는 자리이다. 그 페이지의 구절은 이 순간의 나를 위해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다독여 준다.

청담 큰스님은 마음 잘 쓰는 법, 즉 수행의 방법을 선禪의 사상을 기반으로 명쾌한 설명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

제5장 '마음의 밭을 갈 때' 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망상은 버리려고 할수록 더 일어나는 것이며 텅 빈 지경을 지키고자 하는 까닭은 내가 빈 것과 상대하고 있는 것이니 거기에 팔려 있는 것이다. 한쪽은 끊고 한쪽을 구하려는 망견妄見이다."

중국의 몽참 스님은 삼업三業(身口意)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부터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이다.

글 첫머리에서 '마음에 일이 많아질 때' 라고 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망념妄念을 말한다. 하루에도 수없이 망념이 일어난다. 망념이 일어나 마음 어디쯤 헤매다가 여차 싶을 때는 아주 멀리 떨어지기 일쑤이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려는 내가 '비우려 함' 을 상대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는데 '비움' 을 상대하고 있다니 말이다. 끊임없이 하나를 둘로 나누려 하는 것은 세세생생 미혹함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이리라.

손가락으로 잡으려 하면 더욱 달아나는 물 위의 먼지처럼 망념을 쉬자고 생각을 일으키면 더욱 커지는 것이 망념이다. 이제는 억지로 망념을 끊지 않고 마음 한 켠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망념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나를 알아차리기도 한다.

때로는 망념이 내 생각이 옳다고 치우치게 만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분별하는 모든 것들이 본래 하나였고 둘로 나뉘었을 뿐이다. 본래 하나였기에 다를 바 없다.' 라고 떠올려 본다. 그러면 별수 없이 움켜쥐고 있던 팽팽한 집착의 끈을 서서히 놓게 된다. 더는 우길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산란함은 그렇게 차츰 가라앉는다.

"변함없는 마음에는 남도 나도 없다. 누구나 이 마음자리의 본래 면목을 꼭 알고자 한다. 오직 만법과 이 마음이 둘이 아닐 뿐이다. 둘이 없으면 온 우주 전체가 다 이 마음 하나로 되는 것이요, 이 하나는 도리어 그 전체를 머금고 있다. 온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을 깨치는 선종禪宗으로 들어오느니라."

마음이 도道에 있지 않은데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수행자가 도를 배우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이 마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항상 도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잊은 줄도 몰랐다. 이런 나에게 청담 큰스님의 법문은 이따금 손가락으로 이마를 튕겨주시는 듯하다. 비록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아도 큰스님의 남아 있는 법문들은 내가 수행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실천하는 것뿐이다. 지금 밟아나가는 이 과정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할 것이다. 오늘도 계속에서 망념을 상대하느라 100전 99패 하고 있다. 그럴지라도 나는 부처님께 기도한다. 혼자 걷는 이 길에 매일 실패해도 불도저처럼 뻔뻔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말이다.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과거로의 회귀만이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통은 지켜가야하고, 또 지켜내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행자에게 있어 안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코로나로 원하던 원치 않던 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더욱더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은 신명身命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구태를 벗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하기 보다 본래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19년부터 유래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었다. 전 세계가 COVID-19 공황 상태와 함께 방역을 위한 자가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등 새로운 사회 문화적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승가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강원 속 학인 승가, 운문사의 하루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운문사의 하루는 새벽예불로 시작한다. 새벽 4시에 도량석을 시작으로 예불을 모신 후 108 대참회문을 읽으며 절을 해왔다. 코로나 이후에는 108 대참회 대신 벌써 2년째 사시마지를 새벽에 올리고 있다. 주로 낮에 법당 참배하는 참배객들과의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하루 시작을 108 대참회로 세세생생 지은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삶의 발원을 세우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초심자들에게 새벽마지는 또 다른 신심을 낳게 한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학인들의 면역력이 떨어질까 수업 후에 각 반별로 하던 울력은 줄이고, 40여 분 동안 경전 독송을 하게 되었다. 치문반은 〈위산대원선사경책〉〈이산혜연선사 발원문〉, 사집반 〈선가귀감〉〈대총상법문〉, 사교반 〈금강경〉〈원각경〉, 대교반 〈화엄경〉 등을 독송한다. 경전독송을 하며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어 좋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전통강원의 중요한 일과인 아침발우를 펴고, 상강례를 올리며, 수업을 제 시간에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사시공양은 토, 일요일에 있는 사시발우를 제외하고 후원에서 사부대중이 다 같이 공양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에 사찰공양을 원하는 분들이 그냥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안

타깝다. 사시공양 후에는 각 구역 도량청소를 한다. 오늘의 청정한 운문사 이미지를 있게 한 도량청소는 예나 지금이나 분담해서 쓸고 닦는다. 참배객이 많은 토, 일요일의 불이문 밖 도량 청소는 가능한 한 오전에 한다. 예불하러 가거나 청소시간 이외에는 불이문과 해탈문을 2여 년 간 굳게 닫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문을 닫고 사는 것은 운문사 역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오후 2시 입선 전까지는 쉬는 시간이다. 매주 특별한 요일을 정해서 외부강사를 청하여 염불, 서예, 사군자, 요가 등을 배웠다. 염불은 3~4일 정도 강사스님을 초빙해서 특강으로 배우고, 서예, 사군자는 중단되었다. 요가와 새천년 체조, 태권도는 학인스님의 재능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오후 2시 입선과 저녁 입선은 빠짐없이 시행하며, 저녁 입선에 경전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논강도 변함이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입선 시간에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매일 독송하고 있다. 모든 중생들이 병고액난을 극복하고 치유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다. 자비심을 스스로 느끼고 증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후 2시 입선이 끝나면 정통에서 가볍게 씻고, 저녁공양 후 저녁 예불을 간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예불 할 때도 일정한 거리두기는 당연한 것이다. 법당 참배객 등 사부대중이 다 함께 참여해서 장엄하게 예불했던 때가 그립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주일에 한 번 병원 등의 외부 출타가 가능했었다.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 가는 것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설령 출타를 한다고 해도 완전 소독된 지정된 차량을 이용해서 지정된 곳에 볼 일을 보고, 코로나 검사를 꼭 하고 들어와야 한다.

일상 생활 이외에 매 철마다 하는 개학공사, 자자, 포살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별행사인 동문회, 문화탐방, 문화행사, 큰스님 법문, 외부강사님을 초청한 특강 등은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상주 교수님들의 특강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다양한 수업을 듣게 되었다. 오백전 백일기도 입재 · 회향, 졸업식 등은 축소되었으며, 신입생 면접, 여름불교학교, 동련, 대자원 법회 등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교화부 스님들의 노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여름불교학교, 동련, 대자원 법회 등은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승가에 새로운 불교포교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코로나 전후로 전통적 수행법이 주를 이루었던 운문사승가대학도 득기중得其中을 하려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로의 회귀만이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통은 지켜가야하고, 또 지켜내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행자에게 있어 안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코로나로 원하던 원치 않던 많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더욱더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은 신명身命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구태를 벗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하기 보다 본래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지금, 사상 초유의 힘듬을 겪고 있는 바깥 세상에 산속 승가의 청정한 기운을 보낸다.

▲ 차례법문 법사스님

▲ 오백전 백일기도 회향

▲ 제야의 종

▲ 신정新正 향수해례

▲ 자비도량 참법기도

운문소식

- 11월 19일 대웅보전에서 새벽 예불 후 비로전에서 동안거 결제재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개학공사 및 죽비전달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1월 28일 아침 법공양이 있었습니다.
- 12월 2일 동련에서 주최하는 제71차 전국 지도자 연수회가 '그림책으로 떠나는 마음여행' 을 주제로 선열당에서 줌Zoom을 통한 비대면과,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 12월 3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첫 자자가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 둔 화엄반 스님의 소회와 교화부와 사집반 스님의 '전국 지도자 연수회' 소감과 참가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 12월 10일 차례법문이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법사스님 : 화엄반 명허 스님, 사교반 수정 스님, 사집반 이재 스님, 치문반 경운 스님)
- 12월 18일 회주스님 생신상차림이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회주스님께서는 도반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 12월 19일 오백전에서 제43회 오백나한 100일기도 회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법회는 '실시간 생중계 방송' 을 하며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종각 입구와 처진 소나무 근처에서는 떡, 음료와 책과 달력 나눔이 있었습니다.
- 12월 20일 ~24일 4박 5일 동지 휴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22일 대웅전에서 동지 새벽팥죽마지가 있었습니다.
- 12월 26일 청풍료에서 중간죽비 전달공사가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화엄반 스님이 새로운 회계 · 도감 소임을, 사교반 스님들이 입찰중 소임을 맡았습니다.
- 12월 27일 ~30일 3박 4일 염불특강이 있었습니다.
- 12월 31일 종각에서 제야의 종 33타가 있었고, 비로전에서는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스님들과 화엄반 스님들 졸업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 1월 1일 대웅전에서 새해 떡국마지와 향수해례, 통알이 있었습니다.
- 1월 5일 ~ 7일 비로전에서 사집반 스님들의 자비참기도가 있었습니다. 금당입실의 무장무애를 발원했습니다.
- 1월 7일 겨울철 포살이 원법 교수스님을 단주로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9일 성도재일 철야정진이 청풍료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2일 제10회 한문불전승가대학원, 제58회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월 23일 겨울철 마지막 자자와 방학공사가 있습니다
- 1월 24일 동기방학일입니다. 방학기간은 46일 입니다.

도와주신 분

• 불일암 덕조스님 • 가평 관음정사 • 삼신사 • 붓다선원(김인태)
• 정해옥 • 조서영 • 하옥희 • 권미속 • 강동혜 • 대호정기(주) • 최희영
• 이창희 • 이재영 • 김상달 • 이화진 • 신현섭 • 한기늠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 – 01 – 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관음전 관음보살도〉

일엽홍련재해중 一葉紅蓮在海中　한 잎 붉은 연꽃이 바다 가운데 떠 있고
벽파심처현신통 碧波深處現神通　푸른 파도 깊은 곳에서 신통을 나투시네
작야보타관자재 昨夜寶陀觀自在　어젯밤 보타락가산에 계시던 관자재보살님
금일강부도량중 今日降赴道場中　오늘은 이 도량에 강림하시었네

– 소소매蘇小妹의 '관음예문'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신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22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편입가능)
모집인원　사미니과 ○○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 만의 착용) 2매(3×4)
모집기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전형방법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체)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 · 율주 일진 · 학장 진광 · 주지 운산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모집대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2년도 봄 구족계 수계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집인원　○○명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 · 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증명사진 2매(3×4)
모집기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전형방법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체)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 · 보현율원 율주 일진 · 주지 운산

운문사승가대학 · 대학원 공통 특전사항

해외교류 대학 · 대학원 입학 특전 사항
- 일본 하나조노 대학 · 대학원
- 북경 청화대학 인문계열
-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

연수교육사항
- 4학년 학기 중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교육

재학 중 입학금면제 · 병원비지원 · 전학년 교재 및 도서 지원 · 졸업여행비지원
동국대병원과 MOU체결–매년 무료 종합건강검진 실시

※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정기실사 결과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신 · 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 · 통권 제158호 · 2022년 1월 20일 발행 · 등록 1995년 3월 29일 · 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 · 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 · 명성(전임호)
고문 · 원법 / 편집 · 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 · 도현 / 편집위원 · 대겸, 해탈향 / 사진 · 편집부 / 표지사진 · 도현(운문의 겨울햇살) / 삽화 · 도영, 진아, 문광, 정연下, 경문, 안정, 선혜 / 편집디자인 · 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